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 키운다

전주시, 중소기업 중심 경제 생태계 조성 수립 20일 KOTRA와 협력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수출 적극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전주지역 중소기업들이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각 분야별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우량 기업인 히든챔피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달 중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해주는 2017년도 전주형 성장사다리 사업에 착수하는 등 중소기업 중심의 전주형 경제 생태계 조성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독일형 히든챔피언 육성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은 △전주형성장사다리 지원 사업(3억원) △글로벌 스타기업 발굴·육성 강화사업(5억원) △기업맞춤형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3억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104억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3억3000만원) 및 뿌리기업 환경개선 사업(5000만원)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지원(1억) 등이다.

우선, 시는 KOTRA와 협력해 오는 20일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보다 10배 가까이 늘어난 기업마케팅 해외마케팅 지원예산을 활용해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해외 무역사절단 파견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독일형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육성하는 전주형 성장사다리사업 추진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시는 업체 모집 공고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까지 17개 지원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올 연말까지 총 40개 업체를 선정해 3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달 중 3차년도 글로벌스타기업 모집에 나서는 등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해 역량강화와 각종 지원을 통해 글로벌 스타기업으로 육성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시는 중소기업 중 근로환경이 열악한 기업에게 복지와 편익시설, 근로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직원들의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뿌리기업의 근무환경과 낙후된 공장 환경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들을 제거해 일하고 싶은 업종으로 개선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올해 제조업체와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장애인경영기업 등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 104억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는 전주소재 기업의 생산제품 중 시장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BUY전주 상품으로 선정해 국내·외 마케팅 지원 및 홍보를 통해 판로를 열어주고, 중소기업 기술의 특허 획득도 지원하기로 했다. /김민근 기자

"AI 예방적 살처분 멈춰라"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종교인들로 구성된 '전북 5대 종단 생명평화 종교인협의회'가 6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복지농장에 대한 살처분을 중단해 달라"고 익산시에 촉구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2016 고객만족도 '우수'

4년 연속… 전년보다 2.8점 오른 94.1점 얻어

전북대학교병원은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6년 기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우수등급을 받았다고 6일 밝혔다.

이 조사는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품질 개선을 위해 서비스를 직접 제공받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전북대병원은 전년보다 2.8점이 오른 94.1점을 획득했다. 이로써 기타 공공기관 28개 기관 중 4위를 차지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3년에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것을 시작으로 2014년과 2015년에 이어 2016년 평가에서도 우수평가를 받으면서 4년 연속 고객만족도가 높은 기관으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암센터와 노인보건진료센터, 호흡기전문질환센터 등 질환별 특화센터를 통한 전문적인 진료와 고객서비스 및 환자안전 강화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지난 4년간 고객만족도 우수기관 평가를 받은 것은 지역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을 더 충실히 이행하라는 지역민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도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충분히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 에코시티 대형마트 부지 이달 안 공개 매각

전주 에코시티 내 대형마트 부지를 비롯한 복합상업용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공고가 조만간 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 중 대형마트 부지 1만2060㎡(3684평)와 1만433㎡(3156평) 등 총 7개 필지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을 결정해 오는 19~20일께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시는 앞서 이 대형마트 부지와 관련해 주 용도를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대형마트)로, 불허 용도를 '창고형 대규모 점포'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면적이 넓은 1만2060㎡ 부지에만 복합매장 또는 대형마트를 건립할 수 있게 허용했으며, 작은 필지에는 대형마트도 들어올 수 없게 했다.

이번 입찰 대상에는 대형마트 부지를 비롯해 1만433㎡(3156평) 필지와 5개의 복합상업용지가 포함된다.

시는 빠른 시일 내로 부지 입찰 방식을 결정한 뒤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전주농협 하나로 마트 이외에는 뚜렷이 입찰 의사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에코시티 내 상업용지에 대한 매각 방법을 놓고 에코시티 측과 조율 중"이라며 "입주민들이 원하는 대형마트 부지부터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부지를 한꺼번에 매각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코시티에는 총 1만3000여 가구·3만3000여명이 거주할 예정으로,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김민근 기자

전북경찰, 보안협력 분과위 구성

전북지방경찰청은 6일 지방청보안협력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신규위원 5명을 새롭게 위촉하고 분과위원회를 구축했다.

이날 보안협력위원회는 위촉장 수여 및 의료, 법률지원 등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17년도 탈북민의 내실있는 정착지원 사업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이치순 보안협력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으며, "탈북민들이 미래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보안협력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민·경 협력체제를 강화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뿐 만 아니라 도내 다문화 가정지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갈 계획을 전했다. /김민근 기자

일본뇌염 주의보… 전주시보건소, 방역 강화

"매개모기 유충 서식지 양동이 · 집주변 웅덩이에 고인 물 없도록 환경정비 해야"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제주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질병관리본부 4월4일)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있는 매개모기에 물린 사람의 99%이상이 무증상 이거나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극히 드물게 바이러스에 의해 치명적인 급성신경계 증상으로 진행될 수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12개월에서 만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과 야외활동 시 밝은 색의 긴바지와 긴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 하는 게 좋으며, 옷이나 피부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모기 회피 요령을 숙지해 예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방역기동반을 편성해 △정화조 유충구제 약품 투입 △폐타이어 구멍뚫기 사업 등을 통해 모기 개체수를 줄여왔으며, "앞으로도 방역활동을 더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에게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인공 용기(양동이, 화분 등),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에 고인 물이 없도록 환경 정비 등을 당부했다. /김민근 기자

익산 모 공구점 주인 지갑 · 현금 절도 30대 女 붙잡혀

익산경찰서는 6일 공구점 주인의 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훔친 A씨(34,여)를 형사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익산시내에 위치한 공구점에서 피해자가 책상위에 올려둔 100만원 상당의 고가 지갑과 그 안에 있던 현금 5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근 기자

구독문의 288-9700

전주시, '폐역' 아중역 주변 '시티가든' 조성

내달까지 1억9000만원 투입

전라선 복선화 사업 이후 방치됐던 전주 아중역(폐역) 주변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녹색 쉼터 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오는 5월까지 국비 등 총 1억9000만원을 투입해 아중역(폐역) 주변 1200㎡를 녹지와 휴식시설 등을 갖춘 '시티가든'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아중역 주변에 선주목과 왕벚나무, 황금사철, 양매자 등 나무 9종 5000여그루와 억새 등 51종 4300여본을 식재한다. 또 429㎡ 규모의 잔디를 조성하고, 경관 블럭 쌓기 등도 추진한다.

아중역 주변에 시티가든이 조성되면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휴식을 취할 뿐 아니라 인근 아중호수공원을 방문하러 온 관광객들이 녹색쉼터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근 기자